

□ 졸업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

졸업의 가치변화 '하향곡선'

꽃피는 봄도 아니고 지는 일 아름다운 가을도 아닌데 캠퍼스가 술렁인다. 4년동안 혹은 그 이상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려는 졸업생들의 마음 때문일까? 이 맘때면 캠퍼스 이곳저곳이 분주해진다. 그 분주한 일손들을 '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서 취재했다. 더불어 전통시대와 현대의 졸업을 비교해 보고 졸업의 현재적 의미를 진단해 보기도 했다. (편집자)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졸업은 더 이상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취업대란으로 요약되는 현실속에서 미미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졸업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취직을 의미했다. 성균관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은 어느수준의 지식인을 만드는 양상에 있지 않고 관리등용을 전제한 탁자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졸업은 과거급제나 관리등용과 어느정도 일치선상에 있었고, 당연히 졸업을 축하하는 여러가지 행사가 많았다. 고과가 끝나면 입금이 졸업생들에게 술을 하사해 돌려 마시는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서당에서는 책꽂이 책세식이라해서 학부모가 떡이나 술 패지고기 등을 준비해 훈장을 손님으로 맞아 잔치를 베풀었다. 서당에서는 진도에 따라 개별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진학식이 되었고 공부를 마치는 아이에게는 졸업식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찢던 풍습이 그 때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졸업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제복인 청교를 서로 찢곤 했는데 이를 파금이 라고 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졸업은 과거만큼 깊은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못하는 것 같다. 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가도를 달리

고 높은 교육열으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졸업의 희소가치가 줄었고 대학졸업장은 형식적인 졸업증명서 흔히 말하는 간판으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졸업의 사회적 가치가 하락하고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졸업을 맞는 마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각자의 대학생활에 따라 그 감회는 서로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졸업이라는 굵직한 매듭을 풀뚝히 마무리 지어야 새로운 출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학술부)

97 졸업예정자 전화설문조사

1. 다시 대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 21명	동아리 13	여행 7	기타
--------	--------	------	----

기타: 미팅, 야학, 사회봉사, 아르바이트, 학생운동, 다양한 경험, 무엇이든 열심히

2. 대학생활동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아리 11	학외활동 6	야학 4	기타
--------	--------	------	----

기타: 축제, 학사편입, 도서관자리잡기, 친구들이 사귀는 농활

3. 학교에 바라는 점은?

학생의 편의에 대한 배려 투자 13	학교공사원공 6	등록금 인하 5	기타
---------------------	----------	----------	----

기타: 강의의 질 향상, 사범대 지원, 수강신청 개선

● 설문대상자: 서울·수원캠퍼스 졸업예정자
● 인 원: 50명



'사진 한판 찍으세요' 사진사는 예나 지금이나 졸업식의 단골손님이다



▲졸업식의 주요행사인 '사진찍기'



▲지금처럼 단과대학별로 졸업하기 전에는 노천극장이나 본관앞에서 전교생이 모여 졸업식을 치렀다



▲4년전 현재 졸업 예정자들의 입학식 모습

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학적과와 졸업준비위원회



전영대

(서울캠퍼스 학적과장)

"이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나 없나"

2월 초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학적과가 졸업사정으로 가장 바쁜 때다. 이때쯤 되면 학적과 전직원들은 졸업자들이 이수해야 할 학점을 이수 했는지, 혹시 이수번호를 잘못 적은 것은 아닌가? 2천명이 넘는 졸업생들의 성적을 이장듯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유사과목의 학점을 확인할 때는 바짝 긴장하게 된다고 현재

"성적 확인 정신없어요" 학위증서, 상장제작등

중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머리위에 학사모가 씌어지는 과정은 이처럼 수월치 않다. 평점 4.0이 넘는 경이적인(?) 학점을 얻는 학생들에게 졸업장 외에 우등상을 주고 단과별 학장상과 총장상등 모든 상장을 관리 하는 것도 학적과의

수상 상품구입, 홍보부는 학위 수여식 홍보등을 맡아 진행한다. 제날 세시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졸업식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노고속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문득 졸업식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수정 기자)



김종호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들이 하는 일은 말그대로 졸업 준비.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으로 변신할 경의 학우들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돕고 4년간의 대학생활을 잘 정리하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졸준위의

업무는 졸업앨범제작과 CD-ROM 졸업앨범제작, 학생차원에서의 취업대책마련 두가지로 구분된다. 겉으로 보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앨범제작과 취업문제 모두 기업

졸업앨범, CD-ROM제작, 다양한 취업지원등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다. 4학년으로 구성된 졸업준비위원회와 취업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취업준비와 일하러 여간 바쁜 것이 아니다. 졸준위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31명. 위원장(김종호 화학90)과 부위원장(하미애 화학94)을 중심으로 단과학생회장 10명과 각과대표가 열심히

졸업을 준비했다. 취대위도 음대와 체대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 조직되어 있다. 취대위는 졸준위 산하 조직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졸준위 정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고 단과이하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직은 같고 사람은 다른 셈이다. 이들의 활동은 학년초 부터 시작된다. 4학년이라는 꼬리표를 달자마자 기업을 방문해 "우리학교에는 이렇게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이 많아요"하고 졸

보다 더 실감나는 모의 면접을 열고 여러회사의 취업담당관들을 불러 취업설명회 및 특강도 연다. 작년에는 도서관에 설치됐던 사이버 파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유니텔에서 열었던 취업엑스포 96. 행사에 학생들의 원서를 받아 제출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로 온 추천장을 학점과 토익점수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고 취업정보실과 기업의 회사설명회 일정을 논의 하는 것도 이들의

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인다. 올해는 지난 8월 경찰의 학교 침탈로 졸업생 사진을 몽땅 잃어버려 무척 애를 먹기도 했지만 김중호 위원장은 그만쯤 멋진 졸업앨범이 될 거라며 기대한다. CD-ROM도 작년에 비해 훨씬 다채롭고 수준높은 기술로 제작되었다. 곳곳에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고 입체적인 화면으로 탈바꿈했다. 올해는 동문회의 지원까지 받아 원래 1만2천원이던 가격을 1만원으로 내려 공급한다.

이쯤되면 이들의 역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학생 1인당 2천원씩 받아 7년동안 적립한 돈이 1억원에 이르고 이돈을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듣는다면, 졸업준비위원회가 참 튼튼하고 건강한 학생조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취업문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졸준위의 훌륭한 역할이 기대된다. (최수정 기자)

"21세기 평생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 1997학년도 봄학기 강좌안내 ◎

현대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원천인 물리적인 힘이 '지식' 및 '정보'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도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필요는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요청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아의 개발은 물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폭넓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교육환경,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용교육은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을 물론한 치원 높은 삶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열린 사회 열린 교육을 선도하는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장 김 옥 경

□ 전문 지도자 양성과정

- 논술 전문 지도자
- 지역사회 지도자
- 방과 후 아동 지도자
- 치매 간호 전문인
- 스포츠댄스 지도자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관광통역안내 전문인
- 플라워 앤 아트 지도자
- 외식산업 컨설팅
- 디지털 영상편집 디자이너
- 디지털 사진 전문가
- 사진 예술 전문가

□ 예술 교육과정

- 유희 및 수채화
- 서예교실
- 실내 디자인과 코오디네이션
- 꽃 예술과 디자인
- 엄정행 가곡교실
- 성악교실

□ 보건 교육과정

- 생활 한의학

□ 교양 교육과정

- 건강 가족 상담교실
- 감성지능 EQ 개발 학습
- 새와 자연 탐조
- 박물관과 역사 기행
- 명심보감
- 생활 속의 역철학
- 주역과 동양 문화
- 생활과 법률
- 서정법 수필교실
- 시 창작 교실
- 문학 속의 여인들

□ 사회체육 과정

- 스포츠 댄스
- 아동 리듬체조
- 컴퓨터 교육과정
- 컴퓨터 길잡이
- PC 통신과 인터넷

□ 어학 과정

- 생활 영어(초급/중급/프리토킹반)
- 생활 일어
- 생활 중국어

□ 입학안내 □

① 모집일정

- 입학 전형: 97.2.17~3.8
- 1학기 강좌 기간: 97.3.10~7.4

② 입학자격

- 성별·연령·학력·경력: 제한 없음
-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본 교육원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④ 등록 및 수강신청

- 원서 접수와 수강료 납부로서 등록 완료
- 수강료는 과정별 별도책정(*연구비 15,000원)

⑤ 강의안내

- 각 강좌 수강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 특강·아외세미나·발표회·전시회·체육대회 실시

⑥ 특기사항

- 등록후 교육원생증 발급
- 과정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자격증 수여

◎ 문의전화 961-0870~3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